

## News

### 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합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 당시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합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려...

### 무역금융펀드 DLS도 환매 연기...1천억원 이상 물려

연합뉴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1Y'의 환매가 일부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우리은행에서 판매했으며 환매 중단 규모는 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코로나19의 여파로 자산운용사가 3개월 만기 연장 요청

### '원금상환 중단때 연체안돼'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나온다

연합뉴스

금융위,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하기 위한 방안...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계획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은행에는 보증 비율 확대(90→100%)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

### 결제 취소 전력 있으면 '캐시백 누락'...금감원 카카오뱅크 조사

SBS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그런데 취소 전력 있는 고객들에게는 이 캐시백 적립금이 누락 카카오뱅크, "누락 건을 파악해 다음 달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카카오뱅크 측의 불완전 판매 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

### 보험사 금리위험 공동재보험에 이진...지급여력 제도 개선

연합뉴스

금감원, 29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자기자본 규제인 RBC 제도 개선...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리·신용 위험액을 산출할 때 공동재보험 효과 반영 헤지 목적의 금리 파생 상품에 대해선 금리 위험액을 경감...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를 적용

### 금융플랫폼 보험공략 대형 GA와 '한판승부'

파이낸셜뉴스

토스가 보험분석매니저 채용에 나서고, 보맵은 이르면 7월말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을 출시,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독자적으로 추진 기존 대형 보험대리점(GA)들도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보험판매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사모펀드 200조 더 판매한 증권사...환매 부메랑에 화들짝

데일리안

30일 금투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증권사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345조3,275억원으로 집계...지난 2015년 1월 말 140조4,751억원 대비 145.8%(204조8,524억원) 급증 문제는 증권사가 환매중단 및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판매를 늘려왔다는 점...사모펀드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은행권과 대조되는 모양새

### 금융당국 '토스 내 개인정보 유출 없었다' 잠정 판단

연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조사한 뒤 토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토스가 해킹당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 다크웹 등 다른 곳에서 확보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정 결제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것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